

주일학교(1)

'시와 음악의 오후'는 1966년에 시작 불우이웃돕기는 주일학교 연중행사



제6회 시와 음악의 오후

1971년 6월 12일 제6회 '시와 음악의 오후'를 개최했다. 중등부 학생회가 주최해 1966년(제1회)에 막을 연 이 행사는 매년 지역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초청해 친목과 유머 신앙과 예술활동을 고양시키는 전통적 문화행사였다. 1974년(제9회) 최다 8개 교회가 참가하고 1978년(제13회) 최고 5백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1984년(제19회)에 무용을, 1985년(제20회)에 연극을 곁들여 다채로운 종합예술로 발전했다.



불우이웃돕기바자회

1971년 12월 19일 고등부 학생들이 손수 만든 편물·수예품·시화카드 등 80여점을 가지고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 2만5천원으로 밀가루 25포대를 구입, 25일 오후 박승기 전도사와 오등호 선생 인솔하에 청계천 판자촌 활빈교회를 찾아가 근처 극빈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듬해 성탄절에도 바자회 수익금으로 밀가루 14포대를 전달하고 위문품이 마련되는 대로 경찰서(수감자)·실명인마을·고아원·보육원 등을 방문했다.



추수감사절 안식관 방문

1978년 11월 26일 유초등부 학생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뒤 연중행사의 하나인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들은 행사를 위해 학용품을 비롯해 의류와 현금 등을 정성스럽게 모아 왔었다. 이날 교사와 학생 55명은 성북구 정릉에 위치한 안식관을 방문했다.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들은 친손자 손녀들을 맞이한 듯 반가워했고 그들 앞에서 학생들은 재롱을 부리며 위로해 드리는 등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주일학교(2)

성인성가대의 후예는 학생성가대 주일학교 80주년 행사 성대하게



하계수련회(중등부) - 1974

상 : 1975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양평군 국수리 티 라이프수양관에서 중등부는 제10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말씀 안에서 살자'는 주제로 성경연구 및 토의, 퀴즈·연극·음악·스포츠 등으로 진행했다. (교사 : 10명·학생 : 28명)

중 : 1979년 12월 23일 학생성가대 주최 성탄축하 음악예배 기념.

하 : 왼쪽은 1987년 7월 24일-27일 강원도 철원군 청양국민학교에서 실시한 고등부 하계수련회의 연극분장한 학생들 모습. 오른쪽은 1987년 5월 3일 저녁 주일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축하회의 유년부 발표.



성탄축하 음악예배 기념(학생성가대) - 1979



하계수련회(고등부) - 1987



주일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유년부 발표 - 1987

여섯번째 교회당

제일 먼저 교육사회관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당" 칭송 자자



1976년 1월 18일 1차적으로 교회부지 동쪽 도로변에 연건평 566평(지상 3층)의 교육사회관을 신축해 입주했다. 동 2일 2차적으로 여섯번째 교회당과 부속실의 기공예배를 드리고 1년 3개월 만인 그 이듬해 11월 6일 입당예배를 거행했다. 기독교와 예술과 건축공학이 조화된 아름다운 웅장한 현대식 새 교회당은 1천110석으로 부채꼴 모양의 좌석에 설교 중심의 강단, 간접조명 및 특수 음향장치로 꾸며졌다. 그리고 강단 정면 벽에 성화 색채 유리창(스테인드 글라스)으로 장식했다. 1977년 11월 6일 입당예배를 드린 뒤 드디어 1978년 5월 14일 8백여명의 내빈과 1천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다.



건물 개요

- ① 건평: 연 1,224평(본당 및 부속실 473평 · 교육사회관 566평 · 지하 차고 185평)
 - ② 구조: 벽돌쌓기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및 철골 트러스 골 스테이트 지붕 · 3층
 - ③ 수용: 본당 1,100석(1층 640석 · 2층 360석 · 3층 110석) · 소예배실 300석 · 교실(2 · 3층 2개) 400석 · 도서실 50석
 - ④ 종탑: 종 12개
 - ⑤ 공사비: 본당 및 부속실 1억9천여만원 · 교육사회관 1억여만원
- 상: 기공예배 드리고 첫삽 뜨기 - 1976
중: 여섯번째 교회당과 교육사회관 - 1978
하: 교회당 봉헌 및 수상 기념 - 1978



부설 복지기관

연동신협 : 협동조합 연동의숙 : 노인대학



연동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 1977

1977년 11월 27일 연동교인 135명이 출자금 8만3천원을 내고 연동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79년 2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년 12월 법인설립 신고를 필했다. 금리가 일반은행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예금·적금을 비롯해 대출은 물론, 조

합원이 곧 주주로서 배당의 혜택까지 받아 조합원은 날로 증가했다. 1980년 1월 제2차 정기총회에서 밝힌 1979년도 당기 순이익금은 318만여원이었고 10년 후인 1989년 9월 총자산은 10억원, 1년만인 1990년 총자산은 14억 8천여만원이었다.



제1차 정기총회 - 1979



입금통장을 받는 신입직원 - 1988



연동의숙 제2회 수료식-1982

1979년 9월 5일 연동의숙 첫 개강예배를 드렸다. 사회봉사위원회에서 노인대학 형식으로 문을 연 연동의숙은 자격을 60세(1985년부터 65세) 이상의 연동교인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이수기간 2년 4학기 가운데 한 해를 1,2학기(춘:3-6월, 추:9-12월)

로 나누어 매 학기에 1회의 소풍과 생일 축하,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의와 취미활동 시간으로 편성했다. 1981년 9월 2년과정을 마친 제1기 수료생은 남자 6명, 여자 24명(합 30명)이었으며 1984년 당회는 정관을 인준했다.



자연농원 가을소풍 - 1982



생일 축하예배 - 1984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
기독교 제반봉사에 공헌한 자



제1회 수상자 : 대한성서공회(왼쪽)와 김필례 권사(가운데) - 1978



제2회 수상자 : 대한기독교서회 - 1984



제2회 수상자 : 신의경 권사 - 1984

1973년 1월 5일 당회는 게일 목사 기념 문화상 및 함태영 목사 기념 봉사상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5년 만인 1978년 5월 14일 교회당 봉헌식 석상에서 제1회 게일문화상을 대한성서공회에, 송암봉사상을 김필례 권사에게 수여했다. 상금은 30만원이었다.

게일문화상은 '민족·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 문화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기독교 문화에 기여한 자', 그리고 송암봉사상은 '국가·민족·사회, 또는 교회를 위해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하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수상자격을 규정했다.

1984년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제2회 게일문화상은 대한기독교서회에, 송암봉사상은 신의경 권사에게 주어졌다. 상금은 1백만원이었다. 1988년 12월 18일 연동교회당에서 있었던 캐나다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식전에서 제3회 게일문화상은 한가협회에, 그리고 1989년 10월 29일 교회창립 95주년 기념식전에서 송암봉사상은 생명의전화에 수여했다.



제1회 송암봉사상패

남선교회

1986년 남선교회에서 제2남선교회 분립 1987년 도상욱 지도목사 13년만에 은퇴

상 : 1978년 8월 15일 김형태 목사와 정원식 부목사 인솔하에 남선교회·여전도회·대학부 임원 7명은 최전방 제1기감여단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장병들에게 노고를 치하한 뒤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중 : 왼쪽은 1985년 7월 17일 (제헌절) 수유리 계곡에서 있었던 남선교회 친목야유회.(참석: 45명) 그 오른쪽은 1987년 1월 17일 남선교회 지도목사로 13년



만에 퇴임하는 도상욱 목사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진영득 장로.(그 뒤 이길하 집사)

하 : 1989년 2월 18일 친교실에서 제2남선교회 60명이 연 부부초청 및 신입회원 친교회. 이만규 목사의 설교에 이어서 제기차기·윷놀이·링던지기 등으로 오락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제2남선교회가 1986년 창립됨으로 남선교회는 두 기관이 됐다.



남선교회 친목야유회(수유리) - 1985



도상욱 목사에게 기념패 - 1987



부부초청 및 신입회원 친교회(제2남선교회) - 1989

교회묘지

유지들이 가족묘역·공동묘역 조성 임야·전답 등 총 2만5천263평 확보



1979년 5월 21일(토) 교회묘지 진입로 개통식을 거행했다. 1966년 8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산 77-1·2·3번지 임야 1만9천620평과 1969년 8월 2차로 78-1번지 임야 및 잡종지 등 4천953평을 매입했다. 자금은 교회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했는데 그 절반은 55명 기부자의 가족묘역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에 헌납해 공동묘역을 조성했다. 1983년 3월 박치관 성도(부인 임경옥 집사)가 전답 690평을 기증해 교회묘지는 총 2만5천263평에 이르렀다. 가족묘역의 제1번은 박희옥 성도(1966. 5. 13 매장), 공동묘역 제1번은 김애숙 성도(1966. 6. 6 매장)이다.



진입로 개통예식(박치관·김형태·강영만) - 1979



휴게실 기공예식(기도처·30평) - 1984



추석 합동 추도예식(노천) - 1984



어느 장로의 하관예식 - 1988

특별설교

외국인 목사 줄이어 주일 설교 세계화 시대 문을 연 연동교회



에드몽 페레 목사 - 1979



굴트 목사 - 1979



브라이스 리틀 목사 - 1984



타메 다가오 목사 - 1984



그레고리 우스 대주교 - 1985



에밀리오 카스트로 목사 - 1985

1973년 10월부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인연을 맺은 김형태 목사는 1975년 한국교회협의회 선교위원장과 총회 국제선교위원장으로 관련국가를 순방, 그런 관계로 동역자가 된 여러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내한할 때면 연동교회를 방문해 김형태 목사의 통역으로 주일 설교를 했다. 1979년 9월 9일 세계개혁신교회연맹 총무 에드몽 페레 목사가 설교(산 희망)하고 서독개혁신교회총회 총무 굴트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1984년 9월 16일 미국 새크라멘트에서 목회하는 브라이스 리틀 목사가 설교(하나님의 한 선교를

축하하며)하고 9월 23일에는 뉴질랜드총회장 타메 다가오 목사가 설교(기독자의 책임)했다. 1985년 6월 23일 세계교회협의회 회장단의 한 사람인 인도 정통교회 그레고리 우스 대주교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6월 30일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에밀리오 카스트로 목사가 설교(성령의 놀라운 사역)했다. 이날 오후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선교대회에서 카스트로 목사가 설교하고 연동교회 성가대가 찬양순서를 맡았다.